

## 한 문학인의 눈에 비친 현대 언어학은?

---

김열규

인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말로써 말이 많으니, 더 많이 말할까

오늘날 언어는 언어이면서 언어 이상의 것이다. 여전히 언어는 언어인 채로 언어 아닌 (최소한 아닌 듯한) 매우 많은 다른 개념과 한 동아리로 어우러져 있다. 그로써 언어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발언하고 있다. 문화가 있기만 하면 언어는 잠재적으로건 현재적으로건 말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문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 현상에서도 자연 현상에서도 또한 인간 행위에서도 그것들의 존재성을 문제 삼을 경우, 언어에서의 자유는 가망도 없다. 가령, 보드리야르(J. Baudrillard)가 현대의 상품을 통털어서 기호라고 부르고 현대 문화를 ‘시물라크라(simulacres)’라고 부를 때도 간접으로나마 그것들은 언어에 매어 있다. 그것들은 일종의 언어다. 옛 시조에서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고 개탄했지만, 오늘날 인문학이나 문화론의 추세는 이 노래의 뒤집기를 하고 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더욱 더 말을 할까 하노라” 이만한 패러디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가령, ‘문학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물음이 여전히 유효한 채로 또 다른 물음이 이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바로 '문학은 어떤 텍스트인가?'라는 물음이다. 이에 겹쳐서 '문학은 어떤 디스курс(discourse)인가?'라고 달리 물을 수도 있다. 이들 물음을 바르트(Roland Borthes), 리코르(Paul Ricoeur), 해롤드 블룸(H. Bloom), 그리고 데리다(J. Derrida)와 연관지으면서 우리들은 쉽사리 전자의 물음의 대변자로 로마 야콥슨(Roman Jakobson)을 든다 치면, 실상, 야콥슨의 자리는 이미 '문학?과 텍스트?', 두 의문 부호 사이의 교량이라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야콥슨에게 '문학?과 언어?'라는 두 물음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대학시절 강의 시간에서 야콥슨은 일방적으로 언어학에만 치우쳐서 혹판 어디쯤에 응승크리고 있었다. 이 어마어마한 태산의 그림자는 문학에 조차 던져지지 않았다. 소쉬르(F. d. Saussure)도 투르베츠코이(N. Trubetskoj)도 '소장문법학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음운의 상관속'도 역시 그랬었다. 언어학의 영역 안에서만 그들을 만나고 들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1950년대 초반에 국내 대학의 학부에서 이들에 관한 강의를 들었음을 상기하는 일은 지금도 전율감 없이 겪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은사, 심악 이승녕(心岳 李崇寧) 선생께서 그 당시 이들에 관해서 들려 주시던 바로 그 강의실 그 시간에 이들이 언젠가 필자의 주 전공이 될 문학 이론의 안방에 위세당당하게 밀고 들어오리라는 것(아니, 이미 밀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필자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도 아득하다.

은사의 가르침에 대한 감격과 자신의 미숙함에 대한 낭패감이 교차하는 이 기억 속에서는 야콥슨조차 언어학이라는 '문 없는 담장' 안에 갇힌 신세였다. 하물며 필자가 학기말 시험 답안지에 옮겨 쓴 '음운상관속'의 그 삼각형이 바로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의 '신화소의 삼각형'으로 변신해서 나타날 줄이야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언어학은 인문학의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기만 했다. 문학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언어는 언어학만의 몫이었다. 언어는 언어학 바깥의 아무데도 없었다. 하다못해, 국어국문학과 안[內]인데도 문학과 어학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었다.

심지어 학부를 졸업하기 이전에 심악 선생께서 청량리 댁에서 필자에게 가져다 보라고 친히 권해 주신, 저 칼 휘슬러(Karl Vossler)의 『문명 속의 언어 정

신』(영문판)에서 ‘필로로지(philology)와 문학의 만남’ 및 ‘문학이며 정신사 등, 인간 정신과 언어의 교직(交織)’ 등에 관해서 읽게 되면서 아울러서 레오 스피처(Leo Spitzer)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크게 환희는 하였지만, 앞에 든 여러 별 같은 이름과 관련 지어서 문학을 들여다보는 렌즈는 필자 스스로는 어렵도 없었다. 물론 휘슬러와 스피처가 문학 이론에서 이들 별들을 쳐다보는 것을 쉽게 인도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주 뒷날의 이야기다.

## 2. 언어학적 전환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 두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조차 소위, ‘언어학적 전환’이 머지 않아 닥치리라는 예감을 할 수 있는 낚새는 전혀 없다가 되었다. 어쩌면 깜깜 소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내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형식주의(Russian Formalism)에서부터 문학의 언어학적 전환이 일어났음을 목격하게 된다. 심지어 러시아 형식주의의 경우, 그들의 시학은 곧 ‘시적 언어의 연구’였거니와 이들에게서 심지어 음운 체계는 시를 구축하는 원리로서 포착되고 그 때문에 이들의 ‘시적 음운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학 진영 내의 초기의 ‘언어학적 전환’은 ‘시적 음운론’이 시사하고 있듯이, 매우 높은 합리주의적인 엄격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테면 ‘음운 법칙’이며 ‘문법성’이 문학작품의 작품성 그 자체에서도 추적된 것이다.

한편 이들 형식주의는 고전 수사학의 화려한 재생을 추구하고도 하였다. 야콥슨에 의한 패러다임(Paradigm)과 신타그마(Syntagma)의 은유(Metaphor)와 대유(Metonymy)와의 상호 교체는 좁게는 시학의 수사학적 전환, 넓게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걸친 다양한 이론적 전환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한데 이 경우, 수사학의 재생이 각종 학문 분야에서의 언어학적 전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방면의 화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야콥슨에 의해서 동기가 잡힌 패러다임과 신타그마의 은유와 대유와의 상호 교체는 그 뒤, 인간 문화 및 행위 그리고 심리 등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이 필경 언어적 모델의 은유이거나 대유인 경지를 열어 보이기에 이르는 것이다. 라캉(J. Lacan) 정신분석학은 그 작은 하나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다른 각도에서 바흐틴(M. Bakhtin)을 이 대목에서 언어적 전환의 조금 색다른 보기로서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흐틴이 문학작품을 두고 제기한 이른바, '다이아로직(Dialogic)'이 뒷날 언어학 영역에서 전개된 '스피치 액트(Speech act)' 이론과 같은 패러다임에 속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내 신화와 심지어 친척 조직이며 음식에까지 언어적 모델의 은유적 확장은 계속되고 또 진전된 것이지만 이 때, 말할 것도 없이 야콥슨과 레비스트로스의 개인적 차원의 학문적 거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 문화는 마침내 '언어의 제국'이 되어 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언어의 제국에는 기호, 텍스트, 디스코스 등의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다. 음운 법칙이며 문법의 자리에 이제 코드 및 텍스트성이 자리잡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종래 같았으면 논리, 질서, 원리, 법칙 등, 한 무리의 모더니즘의 키워드들이 무리져서 점거하고 있을 자리를 코드와 텍스트성이 독과점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문학의 영역에만 화제를 국한시킨다면, 종래의 형식이며 구조가 차지하고 있을 자리에 텍스트성이 입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종래의 문체의 개념도 비슷한 양위(讓位)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 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길이요 빛이니라'고 한 구약 창세기 편이 재립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문화의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실현되었다. 이 경우, 기호, 텍스트, 디스코스 그리고 코드와 텍스트성 등에 의해서 초래된 전환은 '포스트 언어적 전환'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각 개로 나뉘어 있던 고전적 인문 분야의 개별성의 담을 헐어 내는가 하면 상당히 크고 드넓은 대문을 새로이 내달게도 한 것이지만 그래서 인문 분야에 아예, '문화기호론'을 전형으로 하는 '문화론'이란 '총괄 학문'을 정립한 것이지만, 이 경우, 길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는 역시 언어이거나 언어가 스스로 자기확대를 치러낸 결과인 텍스트, 기호들이었다. 그리고 이 동향이 마침내 포스트모더니즘의 새 아침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

### 3. 역사적 아이러니

한데 이에서 일종의 역사적 아이러니가 전개된다. 고전 수사학과 필로로지가 뒷걸음 치기 시작할 무렵부터 언어학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입지를 굳혀 갔다. 소쉬르, 촘스키(N. Chomsky), 옐름슬레우(L. Hjelmslev) 등, 몇 사람의 이름을 드는 것만으로도 이를 쉽사리 헤아리게 될 것이다.

한데 언어적 전환이 그 포스트 시기를 맞이하면서 언어학은 과감하고도 대규모의 문호개방을 치러 내었다. 자기를 굳히다가 그 여세 또는 관성으로 자기를 헐어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소쉬르의 마지막 꿈일지도 모른다. 그가 못다한 소망이 이에서 채워 졌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이 위인의 유지를 어기는 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어학의 아이러니는 기호론, 텍스트론 그리고 디스코스론이 차츰 '메타화'를 하게 되면서 더 한층 격화된다. 뒤늦게 서사체론(narratology)도 이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언어학과 기호론 이하 여러 지적(知的)인 영역 사이에는 지속적인 선이 그어지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소위, 일선을 획하는 선이 그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자가 철저히 '객체 과학'임에 비해서 후자의 범주에 들 것들은 '객체 과학'보다는 '메타 과학'의 몫을 보다 더 크게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객체 과학'이란 한 학문적 탐구 내지 이론 아니면 방법론에게 제 몫의 고유한 대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메타 과학'은 범영역적이면서 아울러서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레비스트로스가 가령, 구조주의는 방법론이지 학문 영역이 아니란 뜻의 발언을 한 것을 이에서 연상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극히 최근의 문학론에서 혹은 시학 자체에서 '쓰기'와 '읽기' 자체가 문학에 대한 물음의 안방에 좌정(坐定)한 것도 이에서 쉽사리 연상하게 된다.

이 경우, 자기지시적임은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적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도 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이나?', '철학이란 무엇이나?'라고 물어 온 것이 이에서 드디어 파장에 이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메타 과학의 절대 우세는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의 침예한 신경질적인 동향으로 평가될 부분이지만, 이에도 이미 선례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비트겐슈

타인(L. Wittgenstein)과 논리실증학파는 철학에서 이미 한 세대도 더 전에 자기검증의 학을 정립해 갔던 것이다.

현대 언어학에서 시작해서 각종 메타 과학이 그것에서 파생하기까지가 치러낸 이 엄청난 전환은 단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한 것을 눌러서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류의 지적인 역사 전체에 걸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 전환이다. 학문의 체계, 학문의 원리 그 전체에 걸쳐서 자기성찰과 자기지시적인 작업이 오늘날만큼 학문의 제일선에서 행해진 적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필경, '어떤 언어인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 전환'이란 말을 쓸 것을 머뭇댈 어떤 이유도 없다. 그것은 현대 언어학의 영광일 것이다.

문학을 공부하는 사이 이 전환의 여파는 엄청났다. 그것은 덕이기도 했지만, 혼돈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 해서 늘 방법론적인 자기 채검, 또 채검증이 있었던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고통이기도 했지만 재미이기도 했다는 것은 고백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더욱 민속학 영역과 신화학 영역이 '언어적 전환'에서 언제나 쿤(Kuhn)적인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제시한 것을 목격하고 또 원용하는 재미 또한 적을 수 없었음을 아울러서 고백해 두고자 한다.

이 기쁨, 이 보람의 첫 계기, 대학 학부 시절의 첫 계기를 주신 스승에 대한 경의로 이 줄고를 맺을까 한다.